인류의 발전수단인 인민들사이의 사회문화적관계: 주체사상의 견지에서 본 민주꽁고로동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론문)

로헤껠레 깔론다 앙드레

인류의 력사와 더불어 인민들은 행복과 보다 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갈망하여 왔다. 이러한 진보를 위한 투쟁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줄기차게 진행되고있다.

끊임없는 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인민들은 오늘날 호상협조와 원조, 문화교류를 비롯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호상작용속에서 살고있다.

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조관계속에서 이룩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성과들이 인민들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있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인류앞에는 지배와 예속, 착취와 략탈의 낡은 질서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모든 민족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여야 할 과업이 성숙된 시대적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인류의 발전수단으로서의 인민들사이의 사회문화적관계: 주체사상의 견지에서 본 민주꽁고로동계》를 기본내용으로 한 이 박사론문은 민주꽁고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하여 아프리카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이 론문의 특징은 민주꽁고의 발전에 장애로 되는 모든 도전들에 적중한 해결방도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민주꽁고로동계가 어떻게 주체사상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확립하려는데 있다.

더 정확히는 민주꽁고로동계가 주체조선의 현실을 민주꽁고에 맹목적으로 받아들일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들을 옳바르게 소화하고 민주꽁고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받아들여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이룩하고 착취와 예속, 무지와 몽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는데 있다.

이러한 사업은 민주꽁고인민과 조선인민사이의 긴밀한 사회문화적관계를 통하여 실현가능하게 되였다. 특히 수십년전부터 민주꽁고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 맺어진 정치와 외교분야에서의 쌍방관계는 두 나라사이의 사회문화적관계를 적극 추동하여왔다.

론문에서는 인민들에게 강요되지 않으면서 화목하게 맺어지는 사회문화적관계 즉 호상간 공동의 번영과 평화, 련대성의 원칙에서 발전하는 조화로운 사회문화관계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론문에서는 우선 주체사상이 민주꽁고로동계가 안고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줄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 다음으로는 로동계가 주체사상을 리해하고 소화하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해방, 생산력장성, 련대성과 생명보호의 길을 따라 나아갈수 있는 가능성문제에 대하여 론하는것을 주되는 문제로 하고있다.

연구방법과 기술적측면에서는 주체사상이 구현된 현실을 파악하고 민주꽁고로동계의 현실과의 련관속에서 사회문화적분야에서 꽁고민주주의공화국의 발전에 맞는 전략을 세우려는 목적에서 력사적, 분석적 및 비교적방법을 적용하였다.

력사적인 방법에서는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된 력사적자료들과 민주꽁고로동계의 활동조건과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는것이다.

분석적인 방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꽁고민주주의공화국의 사회문화, 정치분야에서 력사적으로 이룩한 성과들을 연구하여 우월성을 소개하며 그 요인과 결과에 대하여 알려준다.

비교의 방법은 그 성과들을 서로 비교하여 좋은 점을 찾아내게 한다.

기술적측면에서 기본은 대회, 전국토론회, 국제토론회와 인터뷰문건들과 토론들이다.

우에서 제시된 문제들에 해답을 주기 위해 론문을 세 체계로 구성하였다.

론문의 첫째체계에서는 국제관계에서 국제관계당사자들의 복잡성과 국가간 문화적충돌과 대화, 인민들사이의 사회문화적관계와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적중한 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한 일반적인 리해를 주고

있다.

론문의 두번째체계에서는 민주꽁고를 식민지로 전락시킨 1885년 베를린대회로부터 시작하여 민주꽁고와 민주꽁고로동계의 특성에 대한 력사적인 자료들을 서술하였다.

세번째체계에서는 주체사상에 비추어 본 민주꽁고로동계에 대해서 서술하였는바 민주꽁고에서 새 사조로 되고있는 주체사상과 그에 비추어 민주꽁고로동계의 당사자들을 계몽각성시키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론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론문의 제1 편에서는 국제관계와 문화접촉, 주체사상에 관한 현실에 대한 일반적고찰을 주었다.

민주꽁고발전의 당사자들을 각성시킬수 있는 주체사상을 받아들일 가능성들을 고찰하기 위해 민주꽁고와 더 명백히는 민주꽁고로동계의 특성을 밝히기에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민주꽁고와의 사회문화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범위를 확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제1편 제1 장에서는 국제관계: 국제관계당사자들의 복잡성과 문화들의 충돌에 대한 해설을 하고있다.

먼저 제1절에서는 먼저 국제관계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먼저 민족국가들은 전통적인 국제관계담당자들로서 쌍무적 및 다무적접촉과 교류의 주추돌로 되고있다.

명백하게 이러한 민족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그들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과 특수한 조건들에 대한 협상과 결정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대사관들은 조약을 준수하고 오해를 해소하며 쌍방이 다같이 접수할수 있는 해결책과 출로를 찾고 정치, 경제, 과학, 기술, 사회문화적교류를 위한 훌륭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관이다.

민족국가들사이의 훌륭한 외교관계가 수립될 때만이 사람들사이의 자유로운 접촉이 이루어질수 있다.

물론 전쟁으로 인하여 전패국들이 자기들의 문화와 상반되는 생활방식을 강요당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현상으로 하여 생겨난 불만은 후일 반드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산생시킨다.

세계의 기술발전과 경제발전, 사회적변천을 순조롭게 받아들이면서도 자기의 본태를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국제관계당사자들로서의 민족국가들의 지위가 여기에서도 우위에 있다.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은 제국주의자들의 독판치기로 매우 약화되였다.

그러나 약하거나 덜 발전된 나라들은 정치, 경제, 문화에서 진정한 자주권를 행사하여야 한다.

국제관계가 흔히 리해관계에 밀착되여있으므로 이 나라들은 자력갱생의 립장에 철저히 서서 사회적정의와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기초한 발전을 선차적인것으로 내세우는 정치체제하에서 민족적단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족국가들은 민족들사이에 문화를 나르는 적합한 통로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꽁고민주공화국의 경우도 그러하다.

그러나 국제무대에는 점점 더 많은 국제관계담당자들이 활동하고있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제기구들이 있다.

유엔과 유엔로동기구, 유네스코, 유엔에이즈방지기구, 유엔무역기구, 세계식량계획, 유엔개발계획기구 등 유엔산하 전문기구들은 평화를 수호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련대하여 곤난을 겪는 나라들과 분쟁국가들사이에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제적인 조직체계를 가진 기구들이다.

유엔개혁이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왜냐하면 유엔이 창립되던 1945년의 환경이 더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때문이다.

1944년 7월에 창설된 국제통화기금 (FMI) 과 같은 해에 창설된 세계은행이 빈번히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들의 실지수요에 편리하게 대응하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개입강령들이 문제시되고있다.

사실상 이러한 긴축정책으로 하여 3세계의 그 어느나라도 진보를 이룩할수 없었다.

최근에 이 국제기구들은 인적요인에 깊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으며 국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보지도 않고있다.

결과 그 영향을 받던 나라들은 채무가 늘어나고 전보다 더욱더 예속되였으며 큰 피해를 입게 되였다.

다음으로 유럽동맹, 아시아동맹, 아랍련맹과 같은 지역별, 대륙별 기구들이 강화되고있다.

유럽동맹은 성원국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고 부닥치는 금융 및 구조적 난관에 보다 더 잘 대처하기 위하여 재조직되고있다.

아프리카동맹에서 무시할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났다.

동맹의 중요한 성과는 1963년에 조직되서부터 많은 공황들이 일어나고 분렬될 위험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존재하고있는것이다.

약점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중요하고도 어려운 선택앞에서 정치적의지가 없는것이다. 이것은 자주와 련대, 대륙의 안전을 위한 기구로서의 동맹의 단결을 약화시키고있다.

아랍련맹은 대국들의 보호를 받으려는 지도자들과 자주의 길로 나가려는 지도자들, 코란을 믿는 과격파들사이의 사상적불일치로 하여 약화되고있다.

수많은 대륙적기구들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 있다.

아프리카에는 지역별 산하조직들이 대단히 많다.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CEEAC), 일반적으로 영문이름 NEPAD (New partenariaship forAfrica) 으로 알려져있는 아프리카신경제개발

합작회사, 중앙아프리카 경제 및 화페공동체(CEMAC), 서부아프리카국가들의 경제공동체(CEDEAO), 아프리카실업권조종기구(OHADA) 그밖에도 남아프리카나라공동체, 중앙아프리카나라경제공동체 등 여러 기구들이 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아프리카나라들인 경우 다국적기업체들은 경제에서 무시할수 없는 기둥들의 하나로 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을 소유하고있으며 국가들과도 경쟁을 하고있다.

자본주의일색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화에서는 경제의 위력이 결정적인 정치적요인으로 되고있으며 이로하여 국가간, 대기업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심중히 고려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협회들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며 동시에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협동조합과 로조, 교회, 각종 협회들과 기금들에 망라하여 공동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끝으로 여러 형태의 다국적기구들이 생겨났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문명들의 충돌과 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국제관계에 대한 국제법적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국제법에 의한 국가들사이의 관계는 유엔헌장과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을 비롯한 여러 국제협정들에 따라 진행되고있다.

유엔의 전문기구들인 유엔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유네스코, 유엔개발계획, 국제로동기구들에서 전문협정들이 협상되고있다.

국제법에 규제되지 않은 국가적 및 경제금융세력들과 력량관계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국가들사이의 평등관계는 법률술어에 불과하다. 사실상 이러한 평등관계는 구체적현실에서 매번 손상당하고있다.

실제로 국제관계의 현 실태는 정치전략적 힘,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힘의 관계가 우세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들에서 부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들이 저들의 의사와 견해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 압력을 가할수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있다.

또한 다국적군수기업체들과 결탁된 군사대국들은 위협과 전쟁, 테로의 방법으로 자주적인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리고 경제대국들도 시장개최결정, 로임정책, 사회법실행과 같은 사회, 경제, 금융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대부분의 결정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국가채무의 무거운 부담은 남부나라들의 경제장성을 크게 저애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을 보잘것 없는 나라들로 만들고있다.

세계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러한 불공정성에 의하여 초래되는 결과의 하나가 바로 흔히 《남》(남부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 기생그룹이 형성된것이다.

따라서 남부나라들의 국가주권들은 자주의식을 더욱 굳게 가지고 민족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구조개혁을 하여야 한다.

론문에서는 사상조류의 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자본주의는 봉건사회가 기울어져가는 첫 시기에 기원을 둔 학설과 사상으로서 유럽의 산업혁명을 출발로 하여 비약을 이룩하였다.

자본주의는 개인리기주의를 조장시키고 극단한 개인주의를 설교하며 개인을 경제적 금융적 《성공》에로 부추김으로써 능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헌신짝 버리듯 내버린다.

걸출한 리론가들은 저작들과 분석들을 통해서 자체의 모순을 안고있는 자본주의의 쇠퇴를 예언하였다. 자본주의는 각이하고 심각한 구조적 위기(세계적인 쇠퇴)들에서 벗어나보려고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이러

한 변화는 제국주의의 본성으로부터 생겨났다.

국가들사이, 사람들사이의 관계를 세계화하면서 여기에 자본주의를 끌어들이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문화, 경제, 정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우선 불공정한 무역조약들과 자유로운 거래에 의한 무역형태에서 나타나고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체들이 리윤추구를 위해 약한 나라들에 대한 자원략탈전략으로서의 투자형태에서 나타나고있다.

리자와 대부봉사를 통하여 채무를 지게 하는 형태는 제일 많이 쓰이는 지배방법이다

자본주의가 의지하는 지탱점이란 령세국가들의 사대주의적경향이다. 만일 사대주의의 태줄을 끊어버리고 인민들과 지도자들이 굳게 단결하여 나아간다면 령세국가들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여 푸르싱싱하게 번성할것이며 자본주의는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 쇠약해질것이다.

론문에서는 제국주의와 세계화의 내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현시기 세계화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탐욕적인 제국주의자들의 정책실현에서 나타나고있다.

정부수반들의 조절전략에 의하여 다국적기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산업공장들과 중소기업들, 중소산업들과 같은 지방기업들의 창발성을 마비시키고 있다. 다국적사회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재국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고있다. 그러한 방법들에는 이미전부터 써오던 수법들과 투자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방법들이 있다.

또한 무역분야를 볼 때 국가시장들에는 아프리카의것보다 서방과 아시아의 문화를 보여주는 대중상품들이 범람하고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의 민족교육강령들은 자기 나라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려는 나라들의 실천적조건들

에 대한 원만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있다.

또한 계몽교회들에 의해서 전파되고있는 종교는 현실사회의 반영이다.

빈궁이 늘어나 주민들이 기적과 번영을 기원하는데서 안정을 찾는것과 선조들이 살던 땅에서 자유롭고 자주적인 인간으로 살려고 투쟁하는 인민들을 돌려세우려는 음모가들의 유혹적인 술책 등을 들수 있다.

론문의 제1편 제 2 장에서는 인민들사이의 사회문화적관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1절에서는 먼저 인민들사이의 사회문화적관계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세계화는 근본적인 변화들을 가져왔다.

지금 현실적으로 엄연하게 발전된 공업국가들이 교활한 방법으로 아프리카의 문화를 말살하려는 강력한 출판보도공세의 덕을 보고있다.

시민협회들과 인민들속에서 문화의 위력을 발양시켜야 한다.

아프리카의 청년들은 우선 자기 나라의 문화와 력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아프리카가 아프리카공동체의 구체적인 현실보다도 서방의 지리와 문화, 력사와 사회현실을 더 잘 아는 국적불명의 인간들을 만들어내는것은 비정상적이다.

아프리카사람들은 현세대와 후대들을 고무하기 위해 자기의 력사를 객관적으로 편견없이 서술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것도 문화적교류에서 관건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자기의 모국어와 민족어에 정통하여야 한다.

교육뿐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로동계에서 낡고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사회적부정의를 청산하도록 사회문화적관계에 힘을 넣어야 한다.

출판보도계는 평등을 우선시하고 서로의 인식을 도모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적대화에서 근본원칙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호상존중의 원칙에는 우선 국가들사이, 인민들사이, 문화들사이, 성별과 년령 등 기타 다양한 수준의 대화들에서 평등을 보장하는 원칙이 있다.

호상존중의 원칙에는 또한 사상에서의 자유의 원칙으로서 자기의 뿌리를 지키고 긍정적인것으로 고수하는 원칙이 있다.

호상존중의 원칙에는 또한 련대의 원칙으로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존의 새길을 개척하는데서 다른 나라들과 련대하는 원칙이 있다.

인류의 재부는 문화의 다양성이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문화적교류의 공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국가정부들은 문화들사이의 접촉에서 대사관들의 문화부문을 통하여 큰 역할을 한다.

국내외의 비정부단체들도 인민들사이의 사회문화교류의 공간으로 된다.

아프리카를 식민지화 하는데서 보조적인 역할을 논 프로테스탄트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은 아프리카의 문화유산을 악마의 문화라고 비난하면서 그것을 파괴하는데 기여하였다.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이야말로 세계적인 문화의 사도들이다.

론문의 제3절에서는 문화교류의 통로들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출판보도는 문맹계선을 밀어내는 교육과 기술적진보와 함께 날을 따라 더 큰 의의를 띠게 된다.

대학교들과 학회, 로동계과 가두들에서 진행되는 모임들은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문화활동들이다.

고상한 음악회와 체육시합, 예술전시회와 같은 인민들사이의 건전한 문화적접촉들을 장려하여야 한다.

현시기 인터네트는 face book, youtube 와 같은 수많은 사회망들

을 통하여 다른 문화교류통로들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론문의 제4절에서는 사회문화적변천들의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우선 호상리해를 도모한다 : 사람들은 서로 더 잘 리해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잘 알수 있게 된다.

또한 서로 가깝게 하여준다 : 서로 알고 옳게 평가하므로써 서로 가까워지고 다같이 건설적인 교류를 할수 있다.

또한 생활을 개변한다: 공동의 리상을 내세우고 힘을 합쳐 평화와 인민들의 복리를 이룩해나간다.

반대로 어느한 문명이나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명이나 문화를 디디고 올라서는 문명침투는 일찌기 서방이 신식민지화를 정당화하고 아프리카의 자연부원을 빼앗고 세계제패를 위한 경쟁에서 자기의 전략적지위를 차지하려는 탐욕적인 제국주의가 써먹던 수법이다.

이러한 비문화적인 행위와 시대의 암흑속에 묻혀버린 실망은 인류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 없게 하는 부정적인 현상이다.

호상문화교류에서 우선시해야 할 내용들은 공정성, 호상적응과 책임성, 호상이동, 호상발전, 호혜적인 문화적협조들이다.

론문의 제 1 편 제 3 장에서는 주체사상: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이받아들여야 할 사상에 대하여 해설하고있다.

여기서는 먼저 론문의 제1절에서 주체사상의 창시와 그 내용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진로를 새롭게 밝히는것을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비상히 정력적이며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자주시대사상과 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발견하시였다.

주석께서는 조선에서의 두차례에 걸치는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과정에 찾으신 귀중하고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주체사상을 인민들에게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으로 발전시키시였다.

주석께서는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끊임없이 벌리시여 주체사상을 자주시대를 향도하는 유일한 정치철학으로 발전시키시였다,

주체사상은 그 내용에 있어서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주체사상의 근본특징은 사람중심의 사상이라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적원리들을 전개하고 체계화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적과제를 새롭게 내세운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과학적으로 밝힌 사상이다.

론문에서는 주체사상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우선 철학적원리에 대한 해설을 주었다.

주체사상은 우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사회적존재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이룬다는것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또한 사회력사원리에 대한 해설을 주었다.

모든 사회의 력사를 창조하는것은 근로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우선 자주적요구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인민대중은 또한 자기의 창조적활동으로 사회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또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에 대한 해설을 주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가는 립장이다.

사상에서 주체를 확립하여야 한다.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자립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창조적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종합하고 일반화하여야만 그들의 념원과 리익에 맞고 그들이 공감하고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킬수 있는 로선과 방침들을 내놓을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방도는 대중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모범을 보이며 그들에게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군중을 아량있게 대하고 그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것이다.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을 고려하여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받아들이는것이다. 자기의 구체적인 현실에 립각하여 사회공동체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사람의 사상의식을 높이고 자주적인 존재로 키우는 사업을 모든 사

업에 앞세워야 한다.

인간개조사업에서 기본은 설복과 교양이다.

제2절에서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이룩된 조선의 해방과 자주성수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먼저 조선에서의 일제를 반대하는 식민지해방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11살 어리신 나이에 일제의 압제로부터 인민을 구원하실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집을 떠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유격활동을 벌리시여 줄기차게 벌리시여 1945년 조선을 해방하시였다.

앞서 주체사상의 창시부분에서도 언급되였지만 조선에서 반일투쟁이 한창 고조되고있던 1920년대에 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하던 조선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화하며 해방투쟁에로 불러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대중과 리탈되여 령도권싸움과 말공부만 하고있었으며 대중을 단결시킨것이 아니라 파벌싸움으로 분렬시켰다.

그들의 잘못을 꿰뚫어보시고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에게 의거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걸으시였으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히시였다.

큰 나라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에 물젖은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의 론쟁과 말다툼은 종말을 고하고 정치, 경제, 군사강국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단결되고 자기의 힘을 믿으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이 태여났다.

다음으로 나라의 자주권수호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자주성이 없는 인민은 아무런 가치도 신념도 가질수 없다.

자주성을 견지하고 자기 목적을 끗끗이 실현해나가자면 외세의 간섭과 침략, 온갖 착취를 물리칠수 있는 충분한 자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따라서 주체사상에서 국방문제는 선차적인 문제로 되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에 의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강화해오신 군사중시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조선에서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서방의 온갖 정치경제적방해책동속에서도 전면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주체체제의 전취물들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국가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과 로동,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생활조건이 개선되여나가고있다.

교육부문에서는 질량적인 개선이 이룩되였다. 학교교육이 의무화되였으며 재교육도 발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모든 교육이 무료이다. 현재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

교육체계는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세워졌을뿐아니라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일수 있도록 되여있다.

과학연구사업이 비상히 발전하고있으며 국가가 자체의 지식인대렬과 발명들의 덕을 보고있다. 핵무기보유와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인 발사가 그의 뚜렷한 증거로 된다.

로동분야에서는 사회개조가 완성되였다.

보건부문에서는 모든 의료봉사가 무상일뿐아니라 도시와 농촌 그 어데가나 의료시설들과 의료기구들이 항시적으로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어 전체 인민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다음으로 제3절에서는 주체사상의 구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매개 나라와 인민들의 사회력사적현실에 구현문제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주체사상은 경우에 따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철학사상이 아니다.

매개 나라의 인민이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과 자기의 념원에 맞게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구현하여야 한다.

론문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구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여기서 중요한것의 하나는 주체사상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을 종합하여 자기 활동에 구현해나가는것이다.

론문의 제2편에서는 꽁고민주주의공화국과 민주꽁고로동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꽁고민주주의공화국(민주꽁고)은 아프리카대륙의 중심에 적도와 교차되는곳에 위치하고있다. 앙골라와는 2 511km, 브라자빌꽁고와는 2 510km, 중앙아프리카와는 1 577km, 루완다와는 217km, 수단과는 625km, 우간다와는 765km, 부른디와는 233km, 탄자니아와는 473km,잠비아와는 1 930km 의 국경을 같이 하고있는바 국경의 총 연장길이10 744km이다.

주요자원으로서는 동, 코발트, 금강석, 금, 은, 라디움, 제라마니움, 꼴롬보탄탈석(꼴땅), 황록석, 철, 망간, 우라니움, 록주석, 석, 아연, 월프람, 티탄, 반희유금속, 석탄, 력청석모래와 미광, 목재, 원유, 끼부호의 메탄가스 등이 있다. 또한 자연적으로 비옥한 80 000 000ha 의 땅이 있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알곡생산에 리용되고있는 땅은 1% 밖에 안된다.

민주꽁고의 주요 담수원천은 꽁고강과 그 지류들이다.

꽁고강은 물흐름량이 대서양과 접한 면에서 초당 40 000 000L 로써 브라질의 아마조나스강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며그 길이는 닐강 다음간다. 꽁꼬분지의 중심서부와 북부에는 식물이 무성하다.

이로부터 민주꽁고는 인류의 페로 불리우고있다.

민주꽁고에서는 질좋은 목재들이 생산되고있다.

나라의 수력자원은 100 000MW 로써 대단히 크며 그중 잉가에서만도 44 000MW 에 달한다. 이는 아프리카수력자원의 39%, 세계수력자원의 4.45%에 맞먹는 량이다.

그러나 대도시들에서 사는 인구의 6%만이 전기를 리용하고있다.

농림업측면에서 꽁고는 울창한 적도 및 열대성원시림들을 가지고있다. 수림은 국토면적의 60%를 차지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아마조나스 다음가는 산림자원으로써 세계의 2위이다.

4 000km 의 철길, 153 497km 의 도로(그중 2 794km 이상은 아스팔트포장도로), 15 000km의 배길, 견고한 리착륙장을 가진 26개의 크고 작은 비행장들을 가지고있다.

꽁고민주주의공화국의 인구수는 2010년에 약 7천만명으로 추산되였다. 정치경제적측면에서 민주꽁고는 독립이후 균일한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으며 정치적동란과 침략전쟁, 반란, 사회악 등 이 나라를 부패시켰다.

2002년부터 경제활동에서 긍정적인 장성이 이룩되고있으나 생활수준에서는 아직 긍정적결과가 나타나지 않고있다.

1885년 베를린대회이전시기의 력사를 보자.

1500년에 유럽의 흑인노예상인들이 대륙에 발을 들여놓기전에 아프리카의 대부분 공동체들은 유럽의 첫 봉건국가들과 대비할수있는 발전수준에 있었다.

미국에서 목화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1800년부터 1850년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사냥이 가장 혹심하게 벌어지던 시기이다.

결국 노예무역으로 비대해진것은 누구들인가!

론문의 제2편 제1장에서는 베를린대회이후 민주꽁고의 력사적과정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꽁고독립주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1885년에 당시의 주요유럽국가들은 베를린에 모여 자국내공장들을 계속 유지운영하려면 늘어나는 원료수요를 보장하고 저들의 생산물을 실현할수있는 판로를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이로부터 유럽의 대국들은 유럽대륙밖으로의 령토팽창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였다.

민주꽁고의 광활하고 비옥한 령토를 차지하고 그 자원을 더 많이 략탈하기 위해 레오뽈드2세는 아랍인들과 원주민들사이, 유럽인과 원주민들사이, 유럽인과 아랍인들사이의 싸움을 붙히군 하였다. 이 전쟁들로 하여 수십만의 꽁고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끝으로 꽁고독립주가 벨지끄국왕의 령지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명색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벨지끄의 식민지통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 1908년 10월 18일 벨지끄국왕 레오뽈드2세로부터 벨지끄국가에로의 식민지권이양은 꽁고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꽁고사람들은 계속 가혹한 강제로동, 박해, 살인을 강요당하였다.

• 벨지끄식민지통치기관은 피라미드형태의 든든한 구조로 철저히 집권화되였고 군사화되여있었다.

식민지통치기관과 군대가 《미개》인들을 폭력을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다스릴 때 종교교회는 복종과, 순종, 사대를 강요하여 정신적으로 예속시킬 사명을 지니고있었다.

당시 로동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일 좋은 땅에서 꽁고사람들이 추방되고 그 땅이 국유지로 되였다.

추방된 꽁고농민들을 값눅은 로동력으로 전환되여 갖은 고역을 다 치르어야 하였다. 《폭력은 례상사였으며 … 로동수단은 다름아닌 로동으로 부를 창조해야 할 원주민들이였다.》

현금으로 물수있는 세금도입, 강제로동, 낮은 임금, 식민지기업들을

위한 막대한 리윤의 장성과 특전 등의 억압과 착취속에서 자유를 갈망하여 일떠선 꽁고인민은 민주꽁고의 애국자 에메리 루뭄바의 령도밑에 힘찬 투쟁을 벌려 전진도상의 온갖 함정과 장애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1960년 6월 30일 꽁고의 독립을 이룩하였다.

다음으로 제3절에서는 독립후 50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주되는 특징들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1960년 6월 30일 독립후 오늘까지 국내정치무대를 보면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족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하고 무자비한 책동들로 일관되여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외국의 정치 및 금융렬강들이 나라의 자원을 략탈하도록함으로써 개인의 재산을 축적시키고 저들의 앞잡이들과 사대주의자들, 략탈자들이 리익을 보게 하였다. 하여 민주꽁고는 온갖 동란과 전쟁의 시련을 겪지않으면 안되였다.

합법적인 정부를 반대하는 군사구테타로 인하여 루뭄바 수상이 무참히 학살되였다. 수상에 대한 잔인한 학살을 시작점으로 하여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학살이 대대적으로 감행되고 사람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였다.

여기서 강조되여야 할것은 오 카탕가광산동맹(벨지끄회사) 총리사장 앙리 포르땅의 산하기관인 쏘제침 (SOGECHIM) 회사시설물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들이 애국자 루뭄바수상을 쾌락을 느끼며 총으로 쏘고 각을 떠서 류산용액에 담그어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는것이다.

중앙정부는 루뭄바민족주의운동의 지도자들을 강제로 련행하여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1964년부터 1965년사이에 100만명이 희생되였다.

민족주의운동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전쟁, 카탕가와 남부카사이분립주의자들에 대한 지원과 유엔의 공모.

1965년 11월 24일 모부투장군의 군사구테타, 미국과 서유럽의 적극적인 후원속에 32년간의 피비린내나는 무자비한 독재실시.

1960년부터 1990년사이 꽁고는 아프리카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데서 서방의 지탱점이였다.

로랑 데지레 까빌라에 의해 독재로부터 해방되였으나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서방렬강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하여 로랑 데지레 까빌라정권은 인차 붕괴되였으며 그가 잔인하게 학살됨으로써 존재를 끝마쳤다. 국경을 접한 우간다, 루완다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나라들이 민주꽁고를 반대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놀고있다.

대단히 심중한 조세프 까빌라 대통령시기부터 나라에는 일정한 정치적안정이 수립되였다.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루뭄바수상이 정권초시기부터 민주꽁고 인민을 위한 경제건설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서방렬강들과 그들과 결탁된 민주꽁고의 일부세력들은 나라의 무진장한 자원을 통하여 얻어지는 리윤을 독차지하려고 하였다.

문화적측면에서도 실태는 대단히 비극적이다.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 이상하게 이중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켜온 서방의 로쇠한 민주주의자들의 모호한 태도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국방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인민의 군대를 조직하고 그것이 실지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건설하는것이 선차적이다.

서방식 세계경제는 주기적으로 커다란 경제적난문제들에 부닥치고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세기에 한번씩 경제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있다.

이러한 《경제전쟁》들은 매번 민주꽁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근로대중을 빈궁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로동계의 규범에 관하여 민주꽁고에는 로동의 기초원칙들과 지도기관들과 그들사이관계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제한 로동법이 있다.

민주꽁고의 로동법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된것들중의 하나이다. 이 법은 실행대책과 국제로동기구의 협약들로 보충완성되였다.

그런데 로동에 대한 이러한 법조항들이 정부와 기업주들, 로조와 같은 지도기관들때문에 실행되기 힘들다.

이처럼 민주꽁고근로대중은 불우한 운명에 빠져 자기 조국에서도 《노예》처럼 되여가고있다. 그들은 지난날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고용주들은 점점 더 계약로동자들을 채용하지 않고있다.

고용주들은 로동자들을 리유가 있든 없든 집단적으로 해고시키는데서 지장을 받지 않았다.

반항정신은 다 없어지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것보다 예속과 순종을 강요하는 체계가 서게 되였다.

구매력은 평균 생계유지비보다 낮은 수준이다.

민주꽁고에는 아직도 근로대중을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로동에 참가하도록 추동할만한 통일적이고 옳바른 임금정책이 없다.

민주꽁고로동자와 외국인로동자와의 임금차이가 천야지차다.

론문에서는 민주꽁고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민주꽁고의 풍부한 자원과 지정학적지위가 미국과 유럽렬강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후 아버지를 계승하여 대통령이 된 죠제프 까빌라는 자기의 근본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서방과 심중하게 관계를 재수립해나갔다.

경제분야에서 힘을 넣었다.

국가재정기관들은 은행지불체계에 따라 국가각료들과 공무원들에게 지불하는 형식으로 비교적 정돈되여가고있다.

성과는 아직 적고 힘에 부치는 사업들이 방대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수반이 필요한 정돈사업들을 계속 이끌고 나갈 정책적의사가 확고한가 하는것이다.

국토완정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수반은 나라의 동부에 있는 북키부

에서 정돈사업을 진행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론문의 제2장에서는 민주꽁고로동계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주었다.

먼저 제1절에서는 민주꽁고로동계의 3대당사자들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민주꽁고로동계에서 일반적으로 채용, 로동, 사회적전망성과 국가공무원성들이 국가정부를 대표한다.

민주꽁고의 고용주집단은 다음의 고용주동업자련맹들에 망라되여있는 고용주들로 구성된다.

꽁고기업련맹(FEC), 꽁고중소기업련맹 (COPEMECO), 꽁고전국소기업련맹(FENAPEC), 전국유가증권기업협회(ANEP)

직업로조단체들이 근로자들을 대변한다.

다음으로 제2절에서는 사회단체들사이의 력량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법규범의 틀거리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민주꽁고의 로동법조항들에 따르면 로동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사이 개별적인 분쟁들과 근로자집단과 한명 또는 여러명의 고용주들사이의 집단적인 분쟁은 우선 첫번째경우에는 로동감독총국이 중재하고 두번째경우에는 로동상이나 그의 대리인이 료해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타협이 잘 되지 않을때는 로동재판소에 넘어가게 된다. 로동재판소들은 설치되여 12년이 넘지만 아직도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못하고있다.

일반재판소가 계속 그와 관련된 문건들을 취급하고있다.

로동재판소들이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도 배심판사들(기업가단체와 로조대표들)은 각자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로임을 받으며 일하기때문에 그들에게 매수되는것이나 같기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결심채택에서 독자성을 발휘할수 없다.

여기서는 또한 사회적대화의 틀거리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로동법조항들외에도 전국로동리사회의 제의에 따라 국제로동사무국과 민주꽁고정부의 요구에 맞게 사회적대화의 상설적인 틀거리를 내왔다.

사회적대화의 상설적인 틀거리는 기업가단체와 로조, 국가사이 책임적이고 평등한 관계에서의 접촉에 의해 민주꽁고로동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한다.

근로대중에게 큰 타격으로 되는것은 그들의 빈궁이다.

로조성원들은 근로자들의 리익을 옳바르게 옹호하는 책임적인 로조활동을 벌려야 한다는것을 자각하여야 하며 로동계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며 기업의 수입을 뒤받침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건들을 처리하는 능력을 키우고 항시적인 사회적정의에 기초한 로조의 활동준칙에 맞게 모든 사업을 지도해나가야 한다.

끝으로 로조간부육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로조간부후비들을 다방면적으로 교육육성하여 그들이 자기에 대한 신심과 창조력, 협조정신을 지니게 하여야 하며 예속과 노예적근성, 라태와 전혀 인연이 없는 참다운 애국주의자로 준비시켜야 한다.

론문의 제3장에서는 민주꽁고로동계의 특징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민주꽁고의 경제가 1960년 6월 30일 독립이후에도 계속 외국기업들에 예속되여있다는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

국내생산을 늘이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면 근로자들의 낮은 구매력을 개선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면하게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수있으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다.

또한 정권기관들이 특히는 민족경제성이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관심을 돌려 모리간상배들이 인위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현 정부가 국가재산관리를 합리화하려고 노력하고있다는것이다.

론문의 제3편에서는 주체사상의 견지에서 본 꽁고로동계의 경우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거대한 인적자원과 자연부원, 에네르기, 농업, 문화분야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식민주의자들과 신식민주의자들, 제국주의자들에게 얽매여 아직도 덜 발전된 나라들의 대렬에 속해있는 민주꽁고의 모순에 대처하여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구현하는것은 식민주의의 낡은 쇠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한 정신적량식을 얻기 위한 첫째가는 해결책이다.

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라의 생활형편과 국가관리에서 계속 난관만 조성되고있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겠는가 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꽁고사람들, 특히는 민주꽁고로동계의 담당자들은 자기들의 불행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마비되고 몽유병에 걸린 사람들(특히 상류층)은 개인리기주의와 략탈적인 렬강들의 사촉하에 계속 사대주의를 하고있으며 반역과 물질향락에 물젖어있다.

서방언론계들이 주체사상의 정당성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펼쳐진 현실을 부정하는 불순한 선전을 불어대고있지만 두터운 문화적교류속에 이루어진 사회문화적관계를 통하여 민주꽁고가 자기 운명에 관한 사상을 받아들이는것은 근로대중의 의식을 계몽시켜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을 조직동원하는데서 대단히 중요하다.

돈을 하느님처럼 믿으며 돈에만 신경을 쓰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을 교양하는데 더 큰 힘을 넣어야 하며 근로대중도 마찬가지이다.

론문의 제3편 제1장에서는 꽁고민주주의공화국에서의 주체사상연구보급정형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주체사상이 민주꽁고에 연구보급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해설한 다음 주체사상의 세계사적기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

설하였다.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 나선 아프리카의 선진분자들은 주체사상에서 경제, 사회, 문화, 안전분야의 믿음직한 발전을 담보해주는 정치에서의 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설 신념을 간직하기 위한 원리들을 얻게 되였다.

아프리카의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들은 아프리카의 청년들과 각계층 인민들에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구현해나가고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보급하고 그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아프리카의 대학들, 로동계, 주와 마을들의 문화협회들은 아프리카나라들의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기 위한 활동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 길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가로놓여있다.

오직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간직하고있는 사람들만이 이 길을 헤쳐나갈수 있다.

제2절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광범한 민주꽝고군중들의 반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먼저 주체사상에 접한 민주꽝고인민들의 격정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주체사상연구토론회들이 진행될 때마다 수많은 대학, 고등학교학생들이 드넓은 토론회장들을 꽉 채우군한다.

근로자들과 수공업자들, 농민들과 개인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주체사상의 진수를 찬양하고있다.

도시와 농촌마을들의 주민들도 주체사상을 따라배울수 있다.

또한 상층부의 기회주의적립장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정치적 및 행정적으로 책임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인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은 제국주의자앞잡이들에게 잘못보이고 지

적당할가바 겁을 먹고 주체사상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그들중의 많은 사람들이 주체사상에 공감하고 그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가지고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누리고있는 특혜를 잃을가바 또 사회적으로 매장될가바 두려워 그에 대한 립장을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관리들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로골적으로 헐뜯으며 직권으로 주체사상보급에 많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또 어떤자들은 비밀결사에 가담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주체사상신봉자들을 부당하게 그리고 거짓을 꾸며가면서 국가안전기관에 밀고하고있다.

민주꽁고의 회사들의 간부들은 일반적으로 주체사상의 전파에 제일 신경을 쓰고있다.

그들은 전형적인 신식민주의자들의 사환군들이다. 그들은 자고자대하면서 근로대중을 멸시하고 불로소득과 녀색, 음악과 음주, 제재산(자동차, 별장)자랑하기를 좋아하고있다.

그들에게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해 바칠 일분의 여유도 없으며 돈벌이에만 신경을 쓰면서 돈이 어디서 생기든 관계치 않는다.

그렇게 축적한 금가락지며 금목걸이를 비롯한 금은부치들의 번쩍거림에 만족하여 그들은 래일에 대해서는 일추의 근심도 없이 오직 현재에서는 살고있다.

바로 그들에게서 비밀결사회들은 저들의 비옥한 서식지를 보고있다.

창조성과 옳은 전략으로 백인들의 생활을 잰내비처럼 흉내내고있는 이 민주꽁고사람들을 우리는 같은 동포로서 그들의 정신상태를 개변하도록 도와야 한다.

자기만을 생각할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자주성과 겨레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론문의 제3편 제2장에서는 주체사상의 빛발로 민주꽁고로동계를 계몽각성시키기 위한 방도와 민주꽁고의 현실발전에 맞게 받아들여야 할 주체사상의 내용들에 대하여 해설론증하였다.

이 장의 목적은 민주꽁고의 현실에 맞게 대중에 대한 계몽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내용으로 조직진행해야 할 중요성을 밝히는것이다.

먼저 제1절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해설을 주었다.

청년들은 나라의 미래이다.

때문에 청년들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이 나라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며 선대들의 위업을 빛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다양한 형식으로 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민주꽁고인민자신이 자기의 손으로 각급교육기관들에서 민주꽁고인민을 위한 교육강령을 개혁작성하고 그대로 집행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이 애국주의적인 품성과 높은 창조성, 불굴의 신념을 지닌 인간으로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학생들은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고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모든 대학교들에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을 조직하고 그활동을 적극화하여 대학생들의 세계관을 넓혀주고 하고 그들에게 현시대에 절박하게 나서고있는 문제들이 어떤것들인가에 대한 명확한 표상을 주며 나라의 문명발전을 위하여 과감히 싸워나가며 외세의존을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간 호혜의 원칙에서 협조를 강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그에 정통하여야 한다.

청년대학생들뿐아니라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 할일이 없이 방황하며 강도질과 술독에 빠져있는 과반수의 실업청년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을 돌리고 그들에게도 애국주의와 자력갱생의 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중학교들과 대학교들에 과학기술과 민주꽁고의 력사, 나라의 현실발

전을 기본주제로 하는 강연회, 담화, 토론회들을 자주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2절에서는 로동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온갖 착취와 부정의가 범람하는 현조건에서 민주꽁고로동계는 사고와 행동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우선 사회적정의를 위한 투쟁을 벌리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로조들과 전체 근로대중이 사회법에 정통하여 로동감독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로동법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가 특히 기업주들이 로동법을 지키고있는가를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근로대중은 협동축산와 협동농업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목표들을 자신이 책임지고 점령하여야 한다.

사회단체들에는 서로 협력하고 대화를 나누는 대화마당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로조들을 강위력한 조직들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이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또한 제3절에서는 분권적인 정치행정단위들에 대한 해설을 주었다.

민주꽁고가 자기의 력사적책임을 자각하고 강력한 국가로 일떠서자면 그 기초에서부터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주와 국가의 인민대표들이 현시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는것은 기만당하고 속히우기만 하는 민주꽁고인민들의 낮은 의식상태를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근로대중을 계몽시키고 이끌어야 한다.

순박한 인민들을 리용하여 자기들의 리기적인 욕심을 채우며 인민들을 빈궁과 허무감에 몰아넣는 온갖 고리대금업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민주꽁고의 근로대중이 지역과 구역, 마을을 단위로 하여 뭉쳐 사회경제적목표들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 사업들이 실현되고 번성해나가려면 지방들에 분산되여있는 정치

행정기관들의 일군들을 인입시켜야 한다.

민주꽁고의 각지에 조직된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은 해야할 일이 대단히 많다.

이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정열적으로 민주꽁고인민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4절에서는 지방의회와 국회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지방의회와 국회가 국가안에서 노는 역할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없다.

법채택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발전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해 국가예산을 세워야 한다.

국회의 감독통제기능을 높이며 옳바른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국가발전에서 필요한 시기에 옳바른 로선과 전략들을 세우고 실행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정부에 옳바른 조언을 주어야 하며 그것이 끝까지 관철되도록 한다.

제5절에서는 진정한 애국자들의 투쟁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닌 사람이다.

지식인들과 공장의 일군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근로대중이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하여 압력도 가해야 한다.

꽁고민주주의공화국에서 진정한 애국자들인 인민은 자립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6절에서는 사회문화적관계의 통로들의 효과적리용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대중을 계몽각성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도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되는가 하는것은 사회공보수단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가에 달렸다. 사회공보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주체사상을 꽁고에 구현

하기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민주꽁고가 현재 가지고있는 공보수단들은 출판보도, 교육(강의), 강연회, 인터네트, 여러가지 군중문화활동들이다.

실례로 인터네트는 그 사용자수가 하루에도 수십만명씩 되는것으로 하여 사상교류와 정보통신에서 무시할수없는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문제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것이다. 청년들과 근로대중에게 주체사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것이 성공의 근본담보이다.

론문의 총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의 신봉자들은 굳게 뭉치며 지역 및 공동리사회, 지방의회, 국회를 비롯한 나라의 모든 기구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은 끝없는 조국애를 지닌 진정한 애국자가 되여야 한다.

민주꽁고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는것은 가능하며 이 투쟁에는 수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숭고하고 격동적인 투쟁이다.

민주꽁고로동계의 근로대중은 나라의 운명, 꽁고민주주의공화국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

건전한 국제관계는 지난날 착취받던 나라들이 남을 지배하는 관계를 끝장내고 인류의 번영을 위한 문명교류를 수립해나갈 때만이 이루어질수 있다.

현시기 이러한 변혁은 모든 민족국가들의 정책들에 자유와 발전, 민족적자주성이 반영될 때라야 실현될수 있다.